

건협 전북도회 상반기 도내업체 누계수주, 전년동기대비 38% ↑

도내 건설공사 도내, 외지업체 수주 금액
작년 도내 5547억·외지 8304억
올해 도내 5757억·외지 9068억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은 조사·발표한 상반기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도내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누계건수는 총 660건으로 전년 대비 0.6%(4건) 감소된 반면, 발주 누계액은 1조5,649억원에서 1조7,134억원으로 9.5%, 수주누계액은 1조3,851억원에서 1조4,825억원으로 7.0%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번 통계의 상반기 수주누계금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외지업체의 수주

누계액은 8,304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764억원(9.2%) 증가했고, 도내 업체 수주누계액은 전년도 5,547억원에서 210억원(3.8%)이 증가한 5,75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수주누계액이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2개공구),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5개공구) 등 새만금 관련 대형 사업발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새만

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 새만금 관련 대형사업의 도내업체 참여 평균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 12.9%에서 20.7%로 증가했다. 지역업체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어려운 건설업계에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주관서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품질 보장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현실적 공사비 반영,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등 공사비 정상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DAY’ 무료급식 행사

전북지방우정청, 평화동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찾아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북지방우정청은 12일 평화동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 400여명을 초청,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DAY’ 무료급식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초복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전북지방우정청장을 비롯하여 직원들로 구성된 행복나눔 봉사단원들은 올 여름 일찍 찾아온 폭염으로 인한, 심신이 쇠약해진 어르신들의 원기회복에 좋은 삼계탕을 대접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식사를 도왔다.

이날 한 어르신은 “습한 날씨와 폭염 탓에 땀도 많이 나고 몸도 많이 지쳐있었다”며 “오늘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준비해준 맛있는 삼계탕이 지친 몸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무더위에 취약한 혼자계신 어르신들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영양은 물론, 마음까지 돌봐드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

는 우체국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화성)은 “여름에는 연말에 비해 관심이나 후원이 저조한 편인데, 우체국의 행복나눔 무료급식 행사로 인하여 무더운 날씨에 입맛을 잃어 식사도 못하시고 기운마저 없으신 여러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우정청은 도내 16개 시·군 소재 우체국과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 우체국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지역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펼침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NH농식품제조업론’ 출시

국내산 농산물 원재료 사용 농식품기업 대출금리 0.5% 우대
우수 농업인·농식품기업 무보증 여신한도 최대 50% 추가부여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본부장은 농식품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 ‘NH농식품제조업론’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NH농식품제조업론’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농식품(제조·가공업)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자 또는 정부선정 ‘신지식농업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농업인(개인사업자 등록자에 한함), 농식품기업에 대해서는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50%까지 추가로 부여한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은 “국내산 농산물 소비에 앞장서는 기업을 지원, 업체의(성장·발전)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이루는 선순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북 의사회·전북약사회 회원 위한 JB카드 경품추첨 이벤트 당첨자 발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1일 전라북도 의사회·전라북도 약사회 회원을 위한 JB카드 이벤트 경품 당첨자를 발표

했다. 6월 1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진행되는 본 행사는 전북 의사회·전북 약사회 제휴카드 이용회원을 대상, 매월 2명씩, 총 6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경품으로는 1등 제습기, 2등 공기청정기가 주어지게 된다.

전라북도 의사회·전라북도 약사회 회원을 위한 JB카드 이벤트 경품 행사 추첨은 6월 행사기간 중 제휴카드 ‘전북 의사회, 전북 약사회’를 이용, 금액 30만원 이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 한다. 지금까지 박 창수씨를 비롯 4명의 고객이 행운을 안았고 7월과 8월에도 동일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제휴카드 ‘전북 의사회, 전북 약사회’를 이용하는 회원 누구나 홈페이지(전북 의사회, 전북 약사회) 또는 전북은행 영업점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카드사업부 차장 강정호 063-250-7878) (팀장 박성훈 063-250-7394) 또는 전북은행 콜센터(1588-447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고산농협·서울동대문구아파트연합 부녀회, 농산물 직거래 실시

고산농협 조합장은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아파트 연합부녀회(회장 김정숙)와 고산지역 농산물을 직거래

했다. 고산농협은 동대문구 아파트연합 부녀회와 지난 2014년부터 교류활동을 통해 고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파, 마늘, 감식초, 잣꿀 등을 직거래로 판매해 왔으며, 올 해에도 각 아파트 부녀회장들로부터 주문 받은 양파 20kg기준 3,000량, 자색 양파 10kg기준 600량, 마늘 320점, 감식초 등 약 5천5백만원의 농산물

물을 직거래로 아파트에 직접 배송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활동을 위해 해마다 부녀회장단들이 고산

농협을 방문 농촌체험활동을 했으며, 2016년에는 고산농협 안파공선 출하회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농촌 체험활동을 다녀간 이후 6월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40여명의 회장단이 고산지역을 방문하여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돕고 직거래로 구매하는 고산양파를 직접 수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활동을 통해 생산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 소비자는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느끼는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상생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지역본부 침수피해 재해복구 구슬 땀

전북농협지역본부는 집중호우 재해대책회의 후속 조치로 지난 11일과 12일 2일간(군산시, 김제시)에서 대두 보식과 콩, 대과 등 침수피해 재해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11일에는 군산시 대야면에서 전북 방농협 임직원, 농촌사랑봉사단·고향주부모임 회원 등 60여명이 대두 보식 작업과 12일에는 김제시 광활면에서 90여명이 콩, 대과 작업을 실시해 실에 빠진 농업인들을 다스리나 위로했다. 군산시·부안군·김제시 등 논 농



재배단지에서는 지난 1일 집중호우 침수로 인하여 콩 뿌리가 썩고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썩어 나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전북지역 논 콩 피해면적)은 모두 675.8ha로 잠정 집계됐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장학 문화재단 키네틱 아티스트 ‘강사 엄윤설’ 초청 강연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11일 전주 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제16회 2018 JB 인문학 강좌를 했다. 이날 강좌는 전주 중앙 여자고등학교 재학생인 2학년 350명을 대상 로봇 디자인과 움직이는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키네틱 아티스트 강사 엄윤설’를 초청, 인간과 로봇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키네틱 아티스트(강사 엄윤설)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8명의 엔지니어와 함께 세계 최초 자율주행이 가능한 스키로봇 디아나를 개발, 평창 스키로봇 원격조정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덧붙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부족했던 예산을 충당할 수 있었고 3월 만에 목표액 100%가 달성되면서 시미과 함께 디아나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진행 JB인문학 강좌는 (재)전북은행 장학 문화재단이 “전북 청소년들에게 학습 동기부여와 미래의 꿈 설계,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